

# 중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참여활동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

## Analysis on the Affecting Factors of School Career Educational Activities for Junior-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송인발\*, 강혜영\*\*  
교육부

In-Bal Song(ibsong@moe.go.kr)\*, Hye-Young Kang(wool9911@moe.go.kr)\*\*

### 요약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참여활동이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방향이나 개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 학교 진로교육 실태분석'을 위해 전국 400개교 10,728명의 중3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응답내용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교 진로교육 참여활동 중 '진로와 직업' 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체험은 진로개발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와 직업' 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체험이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끝으로 학교 진로교육 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종 학교 진로교육 활동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 및 한계를 함께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진로개발역량 | 학교 진로교육 | '진로와 직업' 수업 | 진로심리검사 | 진로체험 |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appropriate career educational policies in order to improve junior-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through various school career educational activities with the hierarchical analysis by using data surveyed by 10,728 third grade junior high school students of 400 schools from the '2015 School Career Education Survey'.

The results showed that 'career and occupations' subject learning, career psychological tests, and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were found t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These results in that 'career and occupations' subject learning, career psychological tests, and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help to enhance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of junior-high school students. The implication of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importance and the need for school career educational activitie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provided.

■ **keyword** : |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 'Career and Occupations' Subject Learning | Career Psychological Tests |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

## I. 서론

오늘날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진로선택을 위해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탐색할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1]. 이는 학령기 이후 진로를 변경하거나 재탐색을 하게 하는 등의 결과를 야기해 그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고 있다[2]. 이는 적절한 시기에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과 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방증하며, 진로발달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시기를 대략적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질,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탐색하는 중학교시기로 본다[3]. 이에 교육부[4]는 2013년부터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 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자유학기제를 시범운영해 왔으며, 2016년부터는 이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5].

중학교의 진로개발역량은 학교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을 척도화한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세계 이해’, ‘진로탐색’, ‘진로디자인과 준비’ 영역별 진로선택이나 진로의사결정을 위한 준비 정도를 의미한다[6]. 즉, 개개인은 각 발달단계마다 이루어야 할 진로관련 과제가 있으며, 그것을 해결하는 정도가 바로 각자의 진로개발역량이라 할 수 있다. 진로개발역량은 개인의 능력, 성격, 흥미 등 개인특성 요인과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맥락적 요인이 함께 상호작용하여 이루어진다[7].

예전에는 개인특성에 의한 자율적인 진로 탐색과 의사결정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졌다면, 최근에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각자의 경험이 진로개발역량에 중심 역할을 한다는 관점이 대두되고 있다[8]. 즉, 개인의 발달은 개인내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아동이나 청소년의 진로발달 역시 마찬가지로 본다. 따라서 단위학교에서 진로교육 정책을 통해 적용되는 각각의 진로교육활동을 하나의 변인으로 보고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즉, 진로개발역량 간의 관련성을 탐색해보는 연구들이야말로 실제적, 학문

적 가치가 있다 할 수 있겠다.

현실적으로는 Bronfenbrenner[9]의 주장처럼 청소년 개인을 둘러싼 각종 환경-가정, 학교, 지역사회-등의 사회적 요인이 개인의 직업선택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라는 사회가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고 있다[10][11].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진로선택 및 진로 발달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관계성 요인 중 부모와의 대화나 교과 성적 등이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12].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규정하는 경향이 강한 동양의 문화권에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의사결정 과정에 부모와 같이 의미 있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거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13][14]. 청소년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중 부모 및 교과 성적뿐 아니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실행되고 있는 단위학교에서의 진로교육 활동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한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관점에서 변화 가능한 요인에 초점을 두어 진로교육정책에 직접적인 시사점을 주고자 단위학교 진로교육 활동으로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교과수업으로서의 “진로와 직업”, 소질과 적성을 점검하여 개인맞춤형 진로설계의 기반으로 작동되는 진로심리검사, 학생의 진로설계 지원 및 선택을 위한 각종 상담을 제공하는 진로상담, 진로동아리, 진로체험 활동을 관계성 관련 변인으로 설정하여 그 영향력을 확인·분석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학교 진로교육 활동

국가 수준에서의 학교 진로교육 정책은 2011년 교육부에 진로교육정책과가 신설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이 수립되어, 이에 기반을 둔 ‘진로와 직업’ 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실시, 진로동아리 및 진로체험 지원 등 다양한 학교 진로교육 정책들이 추진되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진로교육의 성과 측정은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정도로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학교 진로교육의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진로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성취기준을 토대로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 수준을 측정하고, 학교 진로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인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정철영 외[15]는 우리나라 진로교육 현황 및 발전 방향 연구에서 초·중등 진로교육의 주요 운영방식을 정규 교과 '진로와 직업'에서의 진로교육,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체험, 특정대상별 진로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하였다.

'진로와 직업'은 중·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이를 채택하여 가르치는 학교(2015년)는 중학교 80.4%, 고등학교 53.8%에 해당한다[16]. 교과 운영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학교급별 내용 및 수준의 체계화[17], 교육과정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교육과정 총론 개선 및 집필 지침 개정[18] 등이 제안되었다.

진로교육법 제10조(진로심리검사)에 따라 교육부[19]는 초·중등학교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진로심리검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진로심리검사는 직업적성검사, 직업가치관검사, 직업흥미도검사, 진로성숙도 검사 등 학생의 진로선택과 계획에 필요한 자기이해를 도와주는 심리검사이며, 학교의 장이 커리어넷, 워크넷, 기타 민간부문의 검사 등을 통해 진로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승구·오성욱[20]은 고등학교 재학 중에 실시한 진로심리검사의 만족도와 취업목표인식도의 관계 분석을 통해 진로심리검사가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진로교육법 제11조(진로상담)는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을 제공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진로상담을 제공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학생진로선택에 관하여 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 청소년의 경우, 진로선택에 있어서 학부모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로선택에서 학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에 대한 청취와

고려는 필수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21].

진로교육법 제2조 3항에서는 '진로체험'을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철영 외[22]는 성공적인 진로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질 높은 프로그램 발굴을 들고 있으나, 우수 프로그램 발굴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업무 과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간이나 기업체의 등을 유인하기 위한 유인가 부족을 들었다.

## 2.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진로개발역량

청소년기는 진로에 대한 탐색과 준비를 하는 중요한 시기로 자기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직업 역할에 대하여 학습하는 것은 물론 실제적인 경험이 필요한 시기이다[23]. 인간은 심리, 사회, 정서, 신체 발달과 더불어 진로에 있어서도 발달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발달은 평생에 걸쳐 일어나고 연령이나 학년에 따른 적절한 발달주기를 가지고 있다. 발달적 접근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Ginzberg와 Super 등을 들 수 있다. Ginzberg는 직업선택을 발달의 과정으로 보고, 직업선택발달의 과정을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의 단계로 구분한다[24]. 11-17세에 해당하는 잠정기의 청소년은 자신의 흥미나 취미에 초점을 맞추어 직업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어 다소 비현실적인 경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Super[25]는 Ginzberg의 이론을 보완하고 진로발달을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적응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는 전 생애를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은퇴기로 나누었고 탐색기와 확립기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학생은 성장기와 탐색기에 걸쳐있으며, 이 단계에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자아를 검증하고 역할을 수행하며 직업탐색을 시도하는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26]은 진로성숙을 자아 이해와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기초로 하여 자기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동일 연령이나 발달단계에 있는 집단의 발달과업 수행 정도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로 정의하고 있다.

교육부[27]는 학교 진로교육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로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성취기준을 토대로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의 진로교육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 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지연[28]은 진로개발역량을 개인의 삶 전체 맥락에서 진로를 개발하는데 요구되는 역량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진로개발역량이 삶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능력, 태도, 가치와 성향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학생들이 각자의 전반적인 사람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인생 과업을 성공적으로 계획, 준비, 달성하는데 요구되는 개인적 자질로 보고 있다[29].

진성희 외[30]는 진로개발역량을 평생진로 발달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소질을 발굴하고 발전시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 영역으로는 자기이해, 진로 및 직업 탐색, 진로결정능력, 여가활용역량, 개척정신을 꼽고, 사회적 변화 및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폭넓은 관점에서의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 연구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 3.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기존연구에서 학생의 진로의식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주로 성[31], 연령[32], 학교생활 만족도[33] 등으로 나타났다. 진로의식은 아동기에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발달하다가 청소년기에 비약적으로 발달한다[34]. 이러한 맥락에서 진로성숙 예측변인으로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이 성과 연령이다. 한편,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진로성숙 수준 초기와 변화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35]. 이에, 청소년기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성, 연령 등의 개인적 특성변인과 학교변인을 통합적으로 분석 가능한 학교진로교육활동이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참여활동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15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 중학교 학생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모집단은 전국 3,186개 중학교의 3학년 학생으로, 표본은 전국 17개 시도별로 층화한 후 각층에서 1차 추출단위(PSU, Primary Sampling Unit)로 학교를 추출하고, 2차 추출단위(SSU, Secondary Sampling Unit)로 학급을 추출하는 2단계 집락추출을 적용하였다. 표본은 400개교 10,728명이다. 조사기간은 2015년 6월 24일~7월 31일(38일간)이며, 온라인 조사를 기본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400개 중학교 10,728명 중, 목록별 결측치를 제외한 2,707명의 응답자료이다.

### 2. 측정도구

#### 2.1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학생의 배경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즉, 선행연구에 기반을 두어 학생의 성별 및 거주지역, 부모와의 대화 정도, 교과성적을 통제변인에 포함시켰다. 이 중, 학생성별(남학생=1), 거주지역(대도시=1)은 0과 1로 더미변수(dummy variable)화하여 분석하였다. 부모와의 대화 정도 변인은 부모님(보호자)과 ‘학교생활(친구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등)’,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나의 미래직업(꿈, 진로희망)’에 대해 자주 대화를 하는 정도로 “두 달에 1번 이하(1)”, “월 1회 정도(2)”, “주 1회 정도(3)”, “주 2~3회 정도(4)”, “매일(5)”의 5점 척도에 각각 응답한 값의 평균값이다. 교과성적 변인은 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사회영역’, ‘과학영역’의 성적이 학급에서 “매우 못하는 수준(1)”, “못하는 수준(2)”,

“중간(3)”, “잘하는 수준(4)”, “매우 잘하는 수준(5)”의 5점 척도에 각각 응답한 값의 평균값이다. [표 1]은 중학생의 진로발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생성방법이다.

표 1. 중학생의 진로발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생성방법

구분	변인명	변인 설명
통제 변인	학생 성별	· 관련 문항에 대해 학생이 응답한 값 더미처리(남 : 1, 여 : 0)
	거주지역	· 관련 문항에 대해 학생이 응답한 값 더미처리(대도시 : 1, 아노오 : 0)
	부모와의 대화 정도	· 관련 문항(3개 문항)에 대해 학생이 응답한 값의 평균값
	교과성적	· 관련 문항(5개 과목)에 대해 학생이 응답한 값의 평균값
독립 변인	‘진로와 직업’ 수업	· 관련 문항에 대해 학생이 응답한 값의 평균값
	진로심리검사	· 관련 문항에 대해 학생이 응답한 값의 평균값
	진로상담	· 관련 문항에 대해 학생이 응답한 값의 평균값
	진로동아리	· 관련 문항에 대해 학생이 응답한 값의 평균값
	진로체험	· 관련 문항에 대해 학생이 응답한 값의 평균값

2.2 학교 진로교육 참여활동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학교 진로교육 참여활동으로 ‘진로와 직업’ 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동아리, 진로체험의 5가지 활동이 해당된다. ‘2015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는 이들 각 진로교육 참여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해당학생으로 하여금 만족하는 정도에 응답하도록 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의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표 2]와 같다.

2.3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진로개발역량’ 정도이다. ‘2015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진로에 관한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잘 표현한 정도에 응답하게 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20개 문항은 [표 3]과 같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20문항의 신뢰도는 .953이다.

표 2. 중학생의 학교 진로교육활동 참여 여부 및 만족도

활동명	참여여부	만족도
진로심리검사(흥미, 적성검사, 홀랜드 검사, 스트롱 검사, 다중지능검사 등)		
진로 상담		
진로 수업(진로와 직업)		
진로 동아리		
진로직업특강(기업 CEO, 직업인, 전문가 등의 강연, 직업인과의 대화 포함)		매우 만족(5), 만족(4), 보통(3), 불만족(2), 아니오(0)
현장견학형(직업 체험처 및 직업현장, 기업체, 공공기관 등 견학)	예(1), 아니오(0)	매우 불만족(1)
학과체험(특성학교, 마이스터고, 대학교 방문 등)		
현장직업체험형(직업 체험처 및 직업현장을 방문해 실제 업무 체험 또는 멘토·직업인 인터뷰)		각 활동별 학생이 응답한 값의 평균값
직업실무체험형(실제 직업과 유사한 직업 체험처나 직업현장에서 업무 체험 및 멘토·직업인 인터뷰)		
진로캠프(학교 안 또는 밖에서 진로심리검사, 직업체험, 상담, 멘토링, 특강 등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캠프에 6시간 이상 참가)		

표 3. 진로개발역량 정도 문항

문항	신뢰도
나는 가족, 친구들에게 소중한 존재이다	
나는 자기관리(시간, 돈, 건강 관리) 방법을 알고 있다.	
자기 이해 및 사회성	
나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있다.	
나는 원만한 대인관계(친구, 가족 관계 등)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는 의사소통(잘 듣고 정확하게 말하기 등)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직업 이해	
나는 직업의 여러 가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나는 새롭게 생겨난 직업과 사라진 직업을 2개 이상 말할 수 있다.	
나는 직업인으로서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따른다는 것을 안다.	
나는 일을 통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업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알고 있다.	.953
진로 탐색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관심 있는 학교에 관한 정보를 찾아본 적이 있다.	
나는 관심 있는 직업에 관한 정보를 찾아본 적이 있다.	
나는 직업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고등학교의 유형과 특성을 알고 있다.	
진로 설계 및 진로 준비	
나는 진로를 선택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중학교 졸업 이후의 미래진로(고교·대학 진학, 취업 등)에 대하여 계획을 갖고 있다.	
나는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	
나는 가고 싶은 고등학교 진학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참여활동이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에 기반을 두어, [그림 1]과 같이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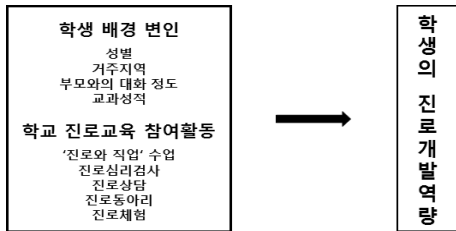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그림

본 연구의 차료처리는 SPSS 21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각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 상관관계(simple correlation)를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학생 배경 변인(성별, 거주지역, 부모와의 대화 정도, 교과성적) 및 학교 진로교육 참여활동(‘진로와 직업’ 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동아리, 진로체험)이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해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변인은 하위문항들의 반응치를 평균값으로 산출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결측치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2,707명의 중학교 3학년 학생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각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종속변인인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정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3.85점으로, Likert 5단계 척도상의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반응도를 보여 주었다. 학교 진로교육 참여활동전체 평균은 3.76이었으며, ‘진로와 직업’ 수업 3.71, 진로심리검사 3.82, 진로상담 3.83, 진로동아리 3.88, 진로체험 3.88로 보통 이상의 평균을 나타내었다.

‘2015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에 참여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은 당초 10,728명이었다. 그러나 [표 4]가 보여 주듯이, 기술통계 분석에 사용된 학생 수는 결측치를 제외하고, 변인별로 10,728명 이하이며, 목록별 결측값을 제외한 2,707명의 응답자료가 회귀분석에 사용되었다. 이처럼 결측치가 많은 이유는 목록별 결측치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결측치를 처리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본 연구는 학교 진로교육 참여활동의 5개 영역 모두에 참여한 학생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표 4. 각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N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왜도	첨도
종속변인							
진로개발역량	10,728	3.85	.67	1.00	5.00	-.131	.262
독립변인							
‘진로와 직업’ 수업	9,575	3.71	.92	1.00	5.00	-.391	.116
진로심리검사	8,635	3.82	.88	1.00	5.00	-.425	.177
진로상담	6,774	3.83	.92	1.00	5.00	-.489	.119
진로동아리	3,563	3.88	.96	1.00	5.00	-.624	.239
진로체험	8,316	3.88	.93	1.00	5.00	-.597	.230
학교 진로활동 전체	10,275	3.76	.84	1.00	5.00	-.392	.390
통제변인							
학생성별(남학생=1)	10,728	0.54	-	0	1	-.148	-1.978
거주지역(대도시=1)	10,728	0.37	-	0	1	.549	-1.699
부모와의 대화 정도	10,728	3.53	1.07	1.00	5.00	-.405	-.518
교과성적	10,728	3.20	.89	1.00	5.00	.101	-.202
유효 수 (listwise)	2,707						

### 2. 상관관계 분석

학생의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진로개발역량과 각 변인들은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로개발역량과 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참여활동은 5개 영역 모두 .45 이상(r)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학생 성별(r=.051), 거주지역(r=.088) 모두 비교적 낮은 정적관계가 있었으나, 부모와의 대화 정도(r=.435), 교과성적(r=.403)의 상관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p<.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학교 진로교육 참여활동 중 진로개발역량과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상관 계수를 보인 것은 진로심리검사( $r=.477$ )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상관은 진로체험( $r=.451$ )이었다.

표 5. 변인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	1									
2	.051**	1								
3	.087***	-.008	1							
4	.435***	.015	.052**	1						
5	.403***	.082***	.098***	.179***	1					
6	.463***	.081***	.020	.215***	.176***	1				
7	.477***	.035*	.020	.220***	.206***	.891***	1			
8	.453***	.064***	.008	.214***	.169***	.891***	.878***	1		
9	.452***	.054**	.006	.215***	.175***	.856***	.859***	.869***	1	
10	.452***	.037*	-.004	.200***	.174***	.843***	.853***	.846***	.863***	1

\*\*\*  $p < .001$ , \*\*  $p < .01$ , \*  $p < .05$

1. 진로개발역량 2. 성별 3. 거주지역 4. 부모와의 대화 정도 5. 교과성적  
6. '진로와 직업' 수업 7. 진로심리검사 8. 진로상담 9. 진로동아리  
10. 진로체험

### 3.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참여활동이 진로개발역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기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통제변인인 학생 배경 변인만을 투입한 제1모형(통제모형)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제1모형에 5개의 학교 진로교육 참여활동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제2모형을 분석하였다. 우선 분산확대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을 조사하여, 회귀분석의 전제조건인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든 변인의 VIF 값은 7.0 이하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제1모형과 제2모형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한편, 모형별로 진로개발역량 정도에 대한 변수들의 설명력( $R^2$ )은 제1모형은 30.0%, 제2모형은 42.4%로서 제2모형에서 추가적으로 투입된 변수들의 설명력은 12.4%로 확인되었다. 즉 모형별  $R^2$  값의

변화를 통해서 진로교육역량 정도에 학교 진로교육 참여활동 변수로 인한 설명력은 12.4% 증가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통제변인 중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거주지역', '부모와의 대화', '교과성적'이었으나, '학생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별로는 '거주지역(대도시=1)' 변인은 제2모형( $\beta = .041$ )에서의 영향력이 제1모형( $\beta = .036$ )에서보다 비교적 상승했으나, '부모와의 대화' 및 '교과성적' 변인은 제2모형( $\beta = .301$ ,  $\beta = .273$ )에서의 영향력이 제1모형( $\beta = .374$ ,  $\beta = .331$ )에서보다 비교적 감소하였다. 모형 간에 통계적 유의성( $p < .05$  이하) 차이가 있는 변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학교 진로교육 참여활동은 '진로심리검사 > 진로체험 > '진로와 직업' 수업'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진로상담'과 '진로동아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두 가지 모형에 기반을 둔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로 나타난  $R^2$ 을 살펴보면, '학교 진로교육 참여활동'이라는 변수가 추가되면서, 학생 진로개발역량의 12.4%를 설명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N=2,707)

	모형1				모형2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 오차	$\beta$		B	표준 오차	$\beta$	
(상수)	2.260	.054		42.008	1.450	.059		24.407
성별(남=1)	.027	.023	.019	1.155	.007	.021	.005	.317
거주지역(대도시=1)	.054	.024	.036*	2.210	.061	.022	.041**	2.767
부모와의 대화	.246	.011	.373***	22.806	.198	.010	.301***	19.850
교과성적	.255	.013	.331***	20.099	.210	.012	.273***	17.992
진로와 직업					.068	.029	.091*	2.374
진로 심리검사					.093	.029	.123**	3.245
진로상담					.026	.028	.034	.909
진로 동아리					.032	.026	.043	1.222
진로체험					.070	.024	.095**	2.886
F	231.669***				115.991***			
$R^2$	.300				.424			
수정된 $R^2$	.299				.422			
$R^2$ 변화량	.300				.124			

\*\*\*  $p < .001$ , \*\*  $p < .01$ , \*  $p < .05$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학교 진로교육활동으로 대표되는 ‘진로와 직업’ 교과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동아리, 진로체험 활동이 진로개발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대하여 검증하고자,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학교 진로교육활동과의 관계를 위계적으로 분석하여 유의도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진로와 직업’ 교과수업, 진로상담, 진로체험 활동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진로체험활동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데, 이를 좀 더 자세히 논의하고 각 결과가 향후 진로교육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와 직업’ 교과수업은 중, 고등학교 청소년기의 발달단계 및 과업을 고려하여 제작된 교과로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학교교육과정 내 교과목으로서 학습 내용과 목표를 탐구하고 교수·학습하는 중에 진로진학상담교사의 피드백을 받으며 교수·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자아이해, 진로정보의 탐색, 진로목표 설정 등을 원활하게 이룰 수 있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와 직업’을 선택하지 않은 학교의 중학교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둘째, 진로심리검사가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심리검사를 실시한 학생이 진로심리검사를 받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진로개발역량을 증진시키는데 유의미한 영향력을 받았음을 의미하므로 진로심리검사가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셋째, 진로체험 경험이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유의했다는 점은 각종 진로체험활동이 진로개발역량 증진으로 연결해주는 변인으로 작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진로개발역량을 종속변인으로 두었을 때, 자아존중감[36][37], 성취동기 및 자아강도[38] 등이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변인들로 작동된다고 연구된 바 있어, 진로체험이 이러한 매개변인들에게 주는 영향과 매개변인이 진로개발역량 증진에 작용하는지 여부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보아야 하고, 이 외

에도 다양한 변인들을 추가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단위학교에서의 진로교육활동이 학생 개인의 진로개발역량에 그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교과 수업시간에의 직접적인 투여 및 개인의 특성 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 수업시간에 직접적으로 투여된 진로교육활동은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을 증진시키는데 기여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 언급된 ‘진로와 직업’ 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 상담, 진로동아리활동, 진로체험활동은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자 단위학교의 진로교육활동으로 대표적인 방안이다. 특히, 이 중 ‘진로와 직업’ 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 체험 등은 회귀분석 결과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증진에 미치는 유의미성도 검증되었다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실행하는 진로교육정책에 의거한 기타 진로교육활동-진로동아리 활동, 진로상담활동 등-이 진로개발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와 더불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책적인 실행의 오류가 있는지는 아닌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또한,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유의미한 진로교육활동인 ‘진로와 직업’ 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체험을 주관 혹은 지원하는 진로전담교사의 진로교육 인식 정도가 가지는 영향력에 대한 세부적인 변인들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교수학습변인에 대한 보다 정확한 가설을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이고 초점화된 정책 개입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1] 김봉환, “청소년의 선호 직업 편중 현상과 진로지



- 도의 과제,” 진로교육연구, 제22권, 제4호, pp.68-83, 2009.
- [2] 교육부,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 보도자료, 2016. 4. 5.
- [3] 정철영,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실과교육연구, 제17권, 제4호, pp.1-30, 2011.
- [4] 교육부,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 발표 보도자료, 2013. 5. 29.
- [5] 교육부,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계획 확정 보도자료, 2015. 11. 25.
- [6]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년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 2015.
- [7] 정운정, *대학생의 가족지지, 진로정체감, 진로신념과의 관계분석*,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8] D. P. Shultheiss, H. Kress, A. Manzi, and J. Glasscock, “Relational influences in career development: a qualitative stud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29, No.2, pp.216-239, 2001.
- [9] U. Bronfenbrenner, “Ecological systems theory,” *Annals of Child Development*, Vol.6, pp.187-249, 1989.
- [10] R. W. Lent, S. D. Brown, and G. Hackett,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In D. Brown & Associate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4th ed., pp.255-311, San Francisco: Jossey-Bass, 2002.
- [11] 김종운, 이태근, “진로캠프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자기효능감 및 진로장벽에 미치는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0호, pp.339-349, 2014.
- [12] 이경희, 윤미현, “청소년의 부모요인, 친구애착 및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제16권, 제1호, pp.175-199, 2011.
- [13] 정구철, 이상학, “대학생의 부모애착이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6호, pp.432-444, 2016.
- [14] 허정철,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9호, pp.504-513, 2010.
- [15] 정철영, 정진철, 이종범, 정동열, 임효신, 이서정, 임정훈, “우리나라 진로교육 현황 및 발전 방향 연구,” 진로교육연구, 제28권, 제3호, pp.155-171, 2015.
- [16]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년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 2015.
- [17] 김승보, 진미석, 이지연, 한상근, 초·중등 진로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서울: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 [18] 최동선, 한상근, 임연, 정운경, 이상준, 김나라, 이종범, *진로교육 정책의 성과와 추진 방향*,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
- [19]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법령 해설 자료*, 2016.
- [20] 이승구, 오성욱, “고등학생의 진로검사·직업체험에 대한 취업목표, 취업준비행동 및 직무만족도의 인과관계 구조모형,” 진로교육연구, 제28권, 제2호, pp.23-40, 2015.
- [21]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법령 해설 자료*, 2016.
- [22] 정철영, 정진철, 이종범, 정동열, 임효신, 이서정, 임정훈, “우리나라 진로교육 현황 및 발전 방향 연구,” 진로교육연구, 제28권, 제3호, pp.155-171, 2015.
- [23] 어윤경, “진로교육 만족도에 따른 진로성숙 수준 변화에 대한 다층분석,” 진로교육연구, 제21권, 제4호, pp.23-41, 2008.
- [24] 한국진로교육학회,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2011.
- [25] D. E. Super,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Row, 1957.
- [26] 한국교육개발원, *진로성숙도검사 표준화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2.
- [27] 교육부, 2015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2016.

- [28] 이지연, *창의인재양성을 위한 진로교육의 과제*, 교육전남, pp.16-22, 2013.
- [29] 이지연, 이영대, 정윤경, 최동선, 김나라, 장석민, 정영근, 남미숙, 이진남,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 운영모델 구축(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 연구 총서 08-29-01, 2009.
- [30] 진성희, 성은모, 최창욱,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타당화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78권, pp.195-220, 2015.
- [31] 우성욱,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효과*,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32] 이현숙, *일반계 고등학생의 과학 심화선택과목 선정과 진로선택에 대한 인식조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33] 권혜경, 이희경, “낙관성이 진로태도성숙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성취동기와 자아강도를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6권, 제4호, pp.723-741, 2004.
- [34] E. Schmitt-Rodermund and F. W. Vondracek, “Occupational dreams, choices and aspirations: adolescents’ entrepreneurial prospects and orientations,” *Journal of Adolescence*, Vol.25, pp.65-78, 2002.
- [35] 어윤경, “진로교육 만족도에 따른 진로성숙 수준 변화에 대한 다층분석,” *진로교육연구*, 제21권, 제4호, pp.23-41, 2008.
- [36] 정주원,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제26권, 제1호, pp.101-118, 2014.
- [37] 차정원, 이형실, “청소년의 가족환경 및 또래환경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교육학회지*, 제26권, 제3호, pp.53-67, 2014.
- [38] 권혜경, 이희경, “낙관성이 진로태도성숙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성취동기와 자아강도를 매개 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6권, 제4호, pp.723-741, 2004.

저 자 소 개

송 인 발(In-Bal Song)

정희원



- 1987년 2월 : 공주대학교 국어교육(학사)
- 2004년 2월 : 고려대학교 국어교육(석사)
- 2016년 2월 : 한양대학교 교육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교육부(장학관)

<관심분야> : 교육, 문화, 콘텐츠

강 혜 영(Hye-Young Kang)

정희원



- 1997년 2월 : 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학사)
- 2002년 2월 : 남가주대학교 TESOL(석사)
- 2010년 2월 : 국립경상대학교 영어교육(박사)

▪ 2010년 12월 ~ 현재 : 교육부(교육연구사)

<관심분야> : 교육, 문화, 콘텐츠